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청년 1·2·3부 통합: 7월 첫주부터

부장에 손경수 장로, 권성수 협동목사 협력지도로 6월 27일 통합예배,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커

교회는 청년1부, 청년2부, 청년3부를 통합키로 결정하고 부장단을 발표함에 따라 6월 말까지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후 6월 27일 저녁 찬양예배에서 통합예배를 드리고 7월 첫주부터 통합된 청년부로 모이도록 통합일정을 결정했다.

현재 청년 1.2.3부는 청년1부가 21-23세, 청년2부가 24-26세, 청년3부가 27-29세로 연령을 기준으로하여 분리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별로 없었다. 즉 청년부를 분리함으로써 우선 청년 연령층을 3년 단위로 분할함으로써 오는 선후배 관계 및 연속성의 문제, 통합적인 안목으로 교회 내외에서 '청년'을 대표할만한 청년들의 역할문제, 3년 단위로 나뉘어져 있기에 각 부서마다 각기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인해 수료와 진급간에 생기는 적응성의 문제와 훈련받기에 최적기에 있는 20-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속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동안 심사숙고하고 합의한 끝에 교회설립 40주년을 앞두고 보다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청년부를 위해 통합 결정을 하게 되었다.

통합 청년부는 부장에 손경수 장로(청년 2부 부장), 부감에 양종섭 집사, 우순성 권사(이상 청년3부 부감)가 임명됐고 청년1부 부장 박승준 장로는 새가족위원회 행정부장으로, 부감 황영일 집사, 염숙현 권사는 신설 새가족위원회 행정부감으로, 또한 청년 3부 부장 최대원 장로는 신설 새가족위원회 양육부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지도교역자에는 장우천 강도사(청년 2부 지도)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통합 초기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권성수 협동목사를 협력지도로 임명하는 배려를 했다.

물론 통합함으로써 오는 후유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은 '함께 할 때'인 것임을 모두가 이해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 후의 청년부는 보다 새로워진 위상과 규모가 커진 입장에서 청년부가 감당해야 할 일과 교회 내에서 청년부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교사와 학생, 지도부가 일치하여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모두가 적응하며 안정감 있는 청년부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통합 청년부는 균형있고 안정감있는 성장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있는 신앙훈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 바탕 위에서 각 개인의 특성을 살린 각종 활동들과 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과 선교활동 등을 폭넓게 펼치며 교회내 각 방면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그릇으로 성장해야 하는 책임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번 통합 청년부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통합에 청년부 당사자들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어야 하겠음은 물론 전 교인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사임·이동·신임

교회는 지난 5월 정기당회(6월 6일)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파송받아 일본선교사로 가는 김해규목사(청년3부지도·제3교구 담당) 및 미국 유학을 가게되는 신포근 목사(장년2부·제5교구 담당)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또한 청년 1.2.3부가 통합하게 되고, 새가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

1. 사임

김해규목사(청년3부지도·제3교구 담당)
신포근목사(장년2부지도·제5교구 담당)

2. 이동 및 신임

- 권성수 협동목사(장년1부 지도) → 청년부 협력지도
- 김용기 목사(경로대학 지도) → 새가족위원회 지도
- 홍창민 목사(새가족부 지도) → 교육위원회 및 소망부 지도
- 장우천 강도사(청년2부 지도) → 청년부 지도
- 윤삼중 강도사(청년1부 지도) → 장년2부 지도
- 이홍성 목사(초등3부 지도) → 경로대학 지도·제5교구 담당
- 이인우 목사(소망부 지도) → 초등3부 지도·제3교구 담당
- 강은원 장로(새가족부 부장) → 새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6월 14일 원로 목사회의 (충현교회 당)
- 6월 18일 송동교회 10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설교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6월 15일 제11회 전국교역자 초청 교회성장세미나 강의(오산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
- 6월 17일 모범택시기사 선교회 창립예배 설교(봉사관)
- 6월 17일 한·유대인 연합 성회 강의(한사랑 선교회 센터)

· 박승준 장로(청년1부 부장)

- 새가족위원회 행정부장
- 황영일 집사(청년1부 부감) → 새가족위원회 행정부감
- 염숙현 권사(청년1부 부감) → 새가족위원회 행정부감
- 최대원 장로(청년3부 부장) → 새가족위원회 양육부장
- 김구형 집사(새가족부 부장) → 새가족위원회 양육부감
- 박영업 권사(새가족부 부감) → 새가족위원회 양육부감
- 손경수 장로(청년2부 부장) → 청년부 부장
- 양종섭 집사(청년3부 부감) → 청년부 부감
- 우순성 권사(청년3부 부감) → 청년부 부감
- 안종욱 집사(제직회 부서기) → 제직회 서기
- 전용해 집사(예배부 1부 부원) → 예배부 1부 차장

생명을 구하는

값진 체험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헌혈 : 6월 20일, 본당 앞 광장에서

교회는 서울특별시 남부적십자 혈액원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당신의 헌혈로 생명을 구합니다.
Give Blood... Save Life

♥ 혈액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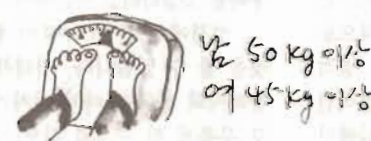
우리 몸 속에는 체중의 약 8%에 상당하는 혈액이 돌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이 혈액의 10%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이다. 그리고 인체의 혈관속에는 전체 혈액량의 절반 밖에 없고 나머지는 혈관 밖 조직에 여분으로 퍼져 있다. 출혈이 생기면 즉각 혈관속으로 모여들어 불과 1.2시간이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은 4,

800cc 정도의 혈액이 있는 셈인데 이중 320 - 400cc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체에서는 매일 500cc 정도의 혈액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헌혈한 사람이 헌혈대를 떠나기도 전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이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으로 정상혈압(최고 100 - 200mmHg, 최저 60 - 100mmHg)인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 헌혈자에게 주는 혜택

1) 혈액의 예치, 헌혈증서 발급

모든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사랑도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형에 관계없이 헌혈량 만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 진단의 기회

체중, 혈압, 혈액형, 혈액비중검사는 헌혈전에 실시하고 헌혈후 Rht 음성혈액형, B형 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 검사(S-GPT)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B형, C형 간염검사가 양성이거나 S-GPT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S-GOT·총단백·알부민·콜레스테롤·요소질소 A/G 비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준다.

- 일시 : 1993. 6. 20(주일)
오전 8:00 - 오후 4: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

1. 표적 구함을 책망하심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7가지나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요21:25).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시기를 청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표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또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을 이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요구는 동기에 불순성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되신 증거보다 고소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처럼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도취적인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남에게서 존경받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 가다가 기도합니다. 이들은 자기과시적인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한 마디로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깨끗함보다는 겉례라고 하는 손씻는 예를 통해서 자기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교만했으며 자신들의 허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라이벌입니다.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종교에 열심이 많고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인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정반대로 아주 현실주의자들이며 합리주의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이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심지어 산헤드린공회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안나오고 공회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산헤드린공회원을 말합니다. 칠십일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도 같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정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재판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는 서로 연합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도 의인을 핍박하고 주님을, 교회를 핍박할 때는 저희들끼리 이의 없이 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생리입니다.

3. 주님의 교훈과 책망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일기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은 저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은 언제나 함께 작용을 합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음란하다는 말과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이면 자기의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랑 이외의 다른 보이프랜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충현강단



누룩에 대한 경고

(마 16:1-12)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저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광풍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계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이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누룩에 대한 경고

본문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당시는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미를 가져다 찢아 먹, 즉 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빵을 안가져 왔더니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갇다 놓여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했

는데 이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나쁜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12절에 나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누룩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교훈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 나쁜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저들의 합리주의, 외식주의, 회의주의,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적은 분량으로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빠질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적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저들의 교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디로부터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은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떼어낸다, 가리어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가리어낸다는 말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해로운 음식이 있어서 음식을 가려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조용하고 은밀히 번져갑니다. 그러나 그 침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전체로 다 번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사상이나 잘못된 신학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한 줌의 독초가 오랜 세월 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양떼를 하루 아침에 죽일 수도 있듯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던 신자들도 순간에 잘못 먹은 독초 때문에 생명을 잃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제목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6장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6장 11절에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도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다 되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의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 많은 종교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하고 있으나 성경은 고난의 의미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고난이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본다.

지금은 용인의 민족촌에만 남아 있는 대장간에 가보면 낫과 괭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석를 불에 빨갛게 달구어 망치로 때려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불 속에 넣어 달구어 망치로 때리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인 것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 및 그림그리기 대회

암송대회 총 340명 참석, 은혜 가운데 진행 그리기대회 교회 앞 뜰을 가득 메운 꼬마 화가들

- 암송대회 최우수상 유인순 집사(장년1부)
- 그리기대회 최우수상 유정완(초등4부)

교회는 지난 주일(6월6일)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 성경암송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교육관 및 본당 앞 뜰에서 가져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온 교인이 함께 가질 수 있었다.

암송대회는 이미 2,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교회학교 및 단위 부서별로 예선을 거쳐 6월6일 당일에도 각 부서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이 모여 결선을 치루었기에 대회는 한층 밀도있고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출전한 대표자들은 주어진 범위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암송하므로 암송하는 사람이나 심사위원이나 방청하는 사람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각 부서에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참가한 인원은 총 340명이었고 이 중 전체를 통틀어 최우수상에 장년1부 유인순 집사가 빌립보서 전장을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함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시상한 유인순 집사는 6월13일 저녁 찬양예배 후 시범 암송을 할 예정이다.

한편 주일 IV부 예배후 본당 앞 뜰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그림그리기 대회는 여러 시각에서 우리 교회당과 주변 풍경을 그리는 것이었다. 주로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이 교회당 뜰 앞에

아 그림그리기에 열중했고 부모들은 옆에서 물감을 풀어주고 붓을 씻어주며 도와주기도 했다. 맑고 푸른 하늘에 돌로 지은 아름다운 교회당의 모습이 도화지마다 하나 하나 채워지는 모습에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절로 감사가 나오는 시간들이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 각부와 중등 각부,

◎ 그림그리기대회입상자

최우수상 : 유정완(초등4부)

대상 : 유 치 부 우정일

초등1-3부 변준영(초등3부)

중 등 부 이미혜(중등1부)

부 서	우 수	특 선	장 려	입 선
유 치 부	정소영	김기진	조현아	
초등1부	최지영	김정윤	장혜진	김서희
초등2부	손원근	이운조	김현준	윤하원
초등3부	김신정	우경진	이재욱	
초등4부	이윤배	안은주	김 용	
초등5부	배찬희	배태랑	김현석	김인애
초등6부	배소현	박상희	송민정	한보람
중등1부	신수리	김혜영	김지선	김지선
중등2부	최은진	배세라	김충현	김린도
중등3부			이천주	
에바다부				
(초등부)	박광찬	한진희	강분이	박현진
(중등부)	이연실	김근태	최종현	윤병오
포스터		이혜만		양인석

에바다부의 학생 410여명이 교회당 뜰을 가득 메우고 시행된 그림그리기 대회는 최우수상에 초등4부 유정완 학생이 차지했다.

◎ 암송대회 입상자

최우수상 : 유인순 집사(장년1부)

대 상 : 초등부분 박준규(초등2부)

중고등부분 이은혜(중등1부)

대학·청년부분 김수경(청년2부)

장년부분 김재명 장로(장년부)

부 서	1 등	2 등	3 등	장 려
영 아 부	이상우	강소영	이영찬	김성혜
유 치 부	전찬희	박용준	이승언	김선영
초등1부	박준준	김용성	이신학	정창근
초등2부	박준규	김정훈	이주영	이은희
초등3부	유미경	유연주	이영걸	김경도
초등4부	유희찬	석진아	이기혁	강신은
초등5부	조은혜	이영환	양반석	황순용
초등6부	유원주	하상원	김혜원	민정나
중등1부	이은혜	이상급	이희영	문선주
중등2부	하지원	김지호	윤상열	김지훈
영아암송	민경래	김기종	양인석	김린도
중등3부	이민옥	조충현	이혜만	
고 등 부	이나홍	김두엽	소경숙	소선영
청년1부	김희숙	권현주		박현정
청년2부	김수경			
장년1부	유인순			
장년2부	임선애	김영주	김영한	임경옥
장년3부	이목해	손동은	최현자	한주원
장년4부	김재명	경순자		
에바다부				
(학생)	김동선	이승원	고덕연	
(성인)	유성열	조건환	박금희	

●이 사람을 만나보니●

성경암송대회 최우수상

유인순 집사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지난주 있었던 성경암송대회에서 빌립보서 전장을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인순 집사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축하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 성경암송을 그것도 성경의 어느 책 전체를 암송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구역식구들이 권유하고 신청까지 해주었어. 그래서 4월 20일부터 작정하고 시작을 했어. 5월 20일 정도까지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고 그후 부터 대회일까지는 하루에 5,6회씩 전체를 이어서 암송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 다 암송하고 나니까, 또 대회를 마치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 늘 제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이번 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구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세상 공부하듯이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송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지금은 뭔가 큰 부자가 된 것 같이 가득찬 기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교회와 구역식구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성경암송이라는 것이 혼자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대회를 만들고 모두가 암송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고픈 심정입니다.

유인순 집사는 74년부터 77년까지 동양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다. 그래서 발성과 표현력이 뛰어나다. 우리 교회가 제작하고 있는 교회소개 비디오에 유 집사가 녹음을 했다. 지난 총회를 람퐁에서도 본부에서 각 팀의 전격과 공제사항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하여 울림을 한결 돋보이게 했다. 유 집사는 이번 경우에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잘 암송한 분이 있는데 자신에 전달면에서 좀 더 점수를 얻은 것 같다고 하며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자신이 교만해 지지 않기를 바란다. “말하는 유 집사에게 암송으로 얻어진 ‘큰 기쁨과 가득찬 마음’이 늘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또한 이리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쁨에 동참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

- ◀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초등4부의 유정완 어린이의 그림
- ◀ 그림그리기대회를 시작하기 전 다같이 모여 주의사함을 듣고 있다.
- ▼그림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꼬마 화가들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에서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모이는 기혼자 모임을 6월19일(토)에 갖는다.
- ◆ 임마누엘 찬양대는 여름 찬양대 수련회를 8월9일 - 11일 가질 계획이다.
- ◆ 영아부는 현재 2부제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3부제로 드리기로 했다. 현재 오전 9시와 11시에 드리고 있는 것을 오전 9시, 10시, 11시에 각각 3부로 드리게 되며 오늘(6월1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 유치부는 6월20일 초청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 ◆ 초등1부는 6월13일(오늘) 반별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져 서로 친교를 가지며 바르게 찬송가 부르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
- ◆ 초등3부는 자체 내의 암송대회에서 1등 유미경, 2등 유연주, 3등 이영길, 장려 김경

도를 뽑았다.

- ◆ 초등4부는 자체 내의 암송대회에서 1등 유희창, 2등 석진아, 3등 이기혁, 장려 강신은, 이지형, 허다니엘을 뽑았다.
- ◆ 초등5부는 6월13일(오늘) 오후에 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교사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다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저녁 찬양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 ◆ 초등6부는 안드레 586전도운동을 전개하면서 함께 할 어린이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이를 위한 교사기도회로 모이며 어린이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중등1부는 오늘(6월13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태신자 및 장기결석자를 모두 교회로 인도하는 총동원주일로 지킨다.
- ◆ 중등2부는 여름 수양회 일정을 7월21일(수) - 24(토)로 잡고 준비에 들어갔다.
- ◆ 중등3부는 오늘 6월27일 교육관 507호에서 열릴 성경퀴즈대회(범위: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준비중에 있다.
- ◆ 고등부는 고등부 학교별 전도모임인 '기도하는 중'(둘로스)를 구성하여 학교별로 모

임을 갖고 동일 학교 내에서 서로 돌보며 격려하여 서로가 일치가 된 가운데 학교내에서 개인별 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 대학부는 여름수련회를 6월28일에서 7월 2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십계명을 통해 본 우리의 삶'이란 주제로 모인다.
- ◆ 장년3부는 여름수양회를 6월21, 22일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서 모인다. 강사는 김양홍목사.
- ◆ 에바다부(성인)는 오늘 6월20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성경다독상을 시상한다. 에바다부의 이태훈 형제는 제13회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100M와 400M 달리기에서 각각 1등을 하여 1993년 7월에 있는 불가리아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 ◆ 에바다부 지도로 있는 이준우 전도사가 농아인 취업을 알선. 농아인 통역(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 및 충현교회에서 농아인을 위한 사역, III부 예배시 수화통역 등으로 노동부 장관상을 표창받게 되었다. 오는 6월 11일 12시 30분 여의도 전경련 빌딩 3층에서 표창식이 있게 된다.

◆ 전도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난민들을 돕기위한 구제활동으로 감자와 미역을 판매하여 오던바 지난 5월31일 이를 종결하고 1,100만원을 이를 주관하는 선명회에 전달했다. 이에 선명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미역 400개를 우리 교회에 기증하였고, 교회에서는 이를 서부시립병원내의 베데스다교회, 신망애교회, 시온영아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오늘 IV부 예배후 새가족 환영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지난 4월4 일 부터 6월 6일까지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데 새가족을 인도한 교우들은 함께 참석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교구일꾼들도 함께 참석해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지켜주옵소서.
 - ◆ 김창인 목사님 : 6월14일(월) 원로목사회의(충현교회당), 6월18일(금) 송동교회 100주년 기념에 배 및 임직식 설교
 - ◆ 신성종 목사님 : 6월15일(화) 제11회 전국교역자 초청 교회성장세미나 강의(오산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 6월17일(목)모범택시기사 선교회 창립예배설교(봉사관), 한·유대인 연합성회 강의(한사랑선교회 센터)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하셔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미주 선교찬양대의 모든 준비 위에 함께하시며 찬양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계사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3회 연습 실시(주일 찬양예배 후와 수요일 II부 예배후, 토요일 저녁 7:00, 나사렛홀)
- 6월 6일 저녁 찬양예배시 발표회를 가짐
- 제3차 수련회를 6월10, 11일 교회당에서 가졌다.
- 일정 : 6월 26일(토) 3:00 출발, 7월 10일(토) 저녁 9:35분 도착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성경암송대회 / 1993. 6. 6(주일), 교육관에서 각 부서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출전한 340명이 암송대회를 온헤스롭게 마침
- 최우수상 / 유인순 집사(장년1부)
- 그림그리기대회 / 1993. 6. 6(주일), 교회 본당 앞 광장에서 총 410명이 모여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마침.
- 최우수상 / 유정완(초등4부)

3. 제4회 충현올림픽

- 1993. 5. 28(금) 오전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5,500여명이 모여 한마당 축제를 가짐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
- 일시 : 1993. 9. 1(수)~9.3(금)
- 강사 : Norton 목사(리폼드신학교수) 강승삼 목사(충희 선교국장) 충현교회 파송선교사
- 내용 : 선교사 보고, 선교사전, 선교도서전시회, 2000년대 선교를 향한 세미나

5.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 모든 기본계획과 섭의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
- 5월14일, 심포지움에 참여하여 발표할 강사들이 모여 협의

선교지에서 온 편지

복음의 오지인 수리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방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욱 헌신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충현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성원 속에 수리남에 무사히 도착한 김창수 목사가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와 아내, 준영이는 모두 건강한 가운데 예정된 일정대로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힘써주신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선교위원회의 여러 장로님들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동역하는 교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거처하는 이곳에서 오는 7월 12일경까지 두달 정도있다가 안 선교사님께서 안식년 귀국을 하시기 되면 그 사택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곳에 도착후 저는 한국대사관에서 재외 국민신고를 하였고, 또 수리남 관공서에서 외국인 체류 및 노동허가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일 아침 설교부터 협력사역을 서서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 선교사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살피주시고 계셔서 저희 가족은 처음 도착한 이국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별로 어려움 없이 생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저를 이 협력사역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복음의 오지인 수리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방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욱 헌신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안식년 선교사님의 지도를 따라 선교지를 견학하면서 이곳 지리와 풍습을 익히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반대인 차선을 익히면서 자동차 운전도 새롭게 익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8일, 10일에는 안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400km 떨어져 있는 인디언 정글에 다녀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리남에서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가족들의 현지적응, 건강, 언어훈련을 위하여, 외국인 체류 및 노동허가를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항상 성령충만, 말씀충만, 기도충만하도록, 안식년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1993. 5. 27

수리남에서 김창수 목사 올림.